

**지식재산처, WIPO와 손잡고 지식재산 금융 교육 최초 실시**

- 한-WIPO ‘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’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-
- 40개국 이상 지식재산 전문가 대상, 가치평가 및 글로벌 금융 심층 교육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와 공동으로 11. 24.(월)~27.(목)까지 ‘한-WIPO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교육과정’을 온라인으로 신규 운영한다.

지식재산처는 매년 WIPO와 특허,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공동 교육을 운영해왔다.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신설된 첫 국제교육과정인 이번 공동 교육은 지식재산을 단순한 권리가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핵심 자산으로 정의하며, 지식재산 금융 이해 및 투자 활성화 방안 학습을 목표로 한다. 지식재산처는 동 과정에서 40여 개국의 지식재산 정책, 법률, 연구 개발, 금융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노하우와 국제 동향을 심도 있게 공유할 예정이다.

본 과정은 지식재산 금융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의 재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.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▲지식재산 금융의 이해 ▲기술가치평가 3대 접근법 ▲특허 맵(Patent Map) 활용 분석 방법론 ▲지식재산 담보대출 및 유동화 ▲지식재산 수익화 전략 및 투자 ▲글로벌 지식재산 금융 모델 분석 ▲한국의 우수 기술사업화 실증사례 등이다.

지식재산처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“이번 신규 교육과정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과 연계하는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금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이와 같은 선도적 국제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,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 교육과	책임자	과 장	김동국 (042-601-4350)
		담당자	주무관	윤예진 (042-601-4329)